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대축일
제28권 17호 (가해) 2008.3.23

[묵상] 부활 아침에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오시는 주님!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 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아침으로 오시는 주님!

당신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당신께 희망을 두면서도
자주 용기를 잃고 초조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해 온 저희는
샘이 없는 사막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괴로움도 견뎌내지 못하고
일상의 시간들을 무덤으로 만들며
우울하게 산 날이 많았습니다.
선과 진리의 길에 충실하지 못하고
결핍하면 당신을 배반하고도 울 줄 몰랐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가없이 보시고
이제 더욱 새 힘을 주십시오

미움의 어둠을 몰아낸 사랑의 마음
교만의 어둠을 걷어낸 겸손의 마음에만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스며들 수 있음을
오늘도 빛이 되어 말씀하시는 주님!

죄의 어둠을 절절히 뉘우치며
눈물 흘리는 저희의 가슴속에
눈부신 태양으로 떠오르십시오.
하나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해 몸살을 하는
저희의 어둠에도
환히 빛나는 새 아침으로 오십시오.

◆ 시인 / 이해인 수녀 / <부활 아침에> 중에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트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부활대축일 낮 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준주 이옥순 마리아, 김용팔 다두, 이은완 야고보, 이승억 헤로 김동영 베드로, 최막달레나, 호베드로, 장안나, 낙태아기들
	(생)이종민 요셉, 고천용과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최미에 카타리나와 앤과 티나, 민봉식 야고보 김은주 엘리사벳, 배경한 찰스와 배경미 안젤라 이복임 엘리사벳, 신안젤라와 김다니엘 가정, 강나리 보나 홍우택 토마스 아퀴나스, 이봉림 안나와 이순애 카타리나 김복순 벨라데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10,34-37-43

화답송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전례서가 70 참조>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은신 분들.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 하고자.◎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움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제 2독서 콜로새서 (Colossians) 3,1-4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로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음 요한 (John) 20,1-9<또는 마태 28,1-10>

영성체송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도다.
알렐루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재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당	162
봉헌	164,168
성체	169,166
파견	170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계속)

3) 성령의 9가지 열매 : 갈라 5,22-23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
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욕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
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
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성령
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욕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욕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욕을 거스릅니다. 욕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
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
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
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
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갈라 5,13-
25)

① 사랑(love, charity) :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즉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
문입니다.”(1요한 4,8) 따라서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 나머지는 사랑이 맺어주는 열매들이
다. ->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자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
하고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더 강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② 기쁨(joy) :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체
험하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기쁨에 찬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다. 이는 성령의 은혜로 자기 안에 솟구치는 기쁨의 샘을 가
지는 것으로서 기뻐해야 할 일이나 이유가 없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사이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1테살 5,16) -> 기
쁨의 열매를 성장 시키려면 세상의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
느님께 희망을 두는 망덕(望德)을 키워야 한다. 또한 고통과 시
련 중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써(1테살 5,17-18)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③ 평화(peace) :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
는 참되고 진정한 평화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
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
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이다. -> 평화의 열매를 성장 시키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를 나누고 이웃과 화해하며 근심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계 평화를 갈망하시는 성모님의
요청에 의하면 기도와 희생은 평화를 촉진시킨다.

◆(계속 / CBCK + 박상대 신부 제공)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알렐루야."
기쁨의 환호성이 온 누리에 퍼져 나갑니다. 아니 그 기쁨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체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 부활의 위대한 사건을 어느 누가 인간의 지성이나 학문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르 8,27)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건만 지금 그는 빈 무덤이 주는 표징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믿음이란 살아 계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질서에서 오는 것임을 지적해 줍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한 20,2)라는 말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었던 사실을 전해 줌과 동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혼돈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지적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의 복음은 "보고 믿었다"(요한 20,8)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태도를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표현은 그분께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분께 전혀 다른, 말하자면 새로운 형태로 실존하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그저 멋진 하나의 추억에 불과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이란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암흑의 실체를 체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부활을 통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까지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번민하며 괴로워했던 아픔의 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했던 순간들도 되짚어 봅시다. 시기와 질투로 범벅된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아집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떠올리기조차 싫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 봅시다. 먹구름이 뒤덮어 태양 빛을 전혀 쏘일 수 없는 순간조차도 실상 구름 위에서는 강렬한 태양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만질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준 사건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방황과 두려움도, 의구심과 좌절도, 실망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시 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찬란한 생명의 빛을 던져 주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의 터널을 빠져 나와 용기 있게 그분을 따름으로 새로운 희망 속에서 당당하게 삶을 펼쳐가는 것이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삶이 아닐까요?

◆안병철 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최진수 예우세비오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제3독서자	김교복 레오 박희자 마리아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제7독서자 서간	이민상 요한 권순길 세실리아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제물봉헌자	사목회		토런스 북 1/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레지오 재창단 위한 묵주기도 총 30만5천7백18단 봉헌했습니다.
 - 2006년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종교교육분과가 가정 및 본당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해 시작한 전신자 묵주기도 봉헌을 2008년 사순제5주일을 끝으로 게시판 기록을 마칩니다. 지난 1년반동안 총 30만5천7백18단을 바쳤습니다. 비록 봉헌표 기록은 끝났으나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 꾸준히 묵주기도를 올립니다.
 - (반별 봉헌 최종 집계표는 다음주일 주보에 게재합니다.)

月月月 알렐루야 月月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
해주신 전례부,글로리아 성가대, 복사단, 전례봉사단,
제대회 등 해당부서 소속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주일학교 부활절 행사 '은총잔치'
 - 시작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후
 - 물품과 후원금을 기증해주신 김기숙, 김순희, 소성덕, 이인석, 이현주, 현젤리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주일미사 때도 봉헌
 - 희생과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사순절 희생봉투를 지난 성목요일 주님만찬 미사 중에 봉헌하시지 못한 분들은 주일 미사 중에 봉헌해주십시오.

- ◆ 고준희(제임스) 추모미사

지난 2월24일 P.V 비치에서 의로운 희생으로 실종된 고준희 제임스의 추모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추모미사에는 고준희의 동상제작 제안과 라이프 스토리가 슬라이드와 함께 소개됩니다. 또 목격자 증언과 친구들의 애절한 편지도 바칠 예정입니다.

 - 일시 : 3월25일(화), 저녁 7시30분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 백삼위 M.E. 3월 Sharing
 - 일시 : 3월28일(금) 오후 7시
 - 장소 : 정하상 바오로 ♥ 올리아 댁 ☎ 310-768-1488
- ◆ 백삼위 올뜨레아 안내
 - 본당의 3월 올뜨레아 모임은 전 푸르실리스파들이 십자가의 길 기도와 성주간에 열심히 참여하신 것으로 대신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 ◆ 남가주 푸르실료 창설 25주년 기념 골프대회
 - 일시 : 4월1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Oak Quarry 골프클럽(7151 Sierra Av. Riverside) ☎ 951-685 1440
 - 회비 : \$100(모든 분께 개방, 선착순 144명)
 - 경기방식 : White Tee 사용
 - 남자부/여자부, 우승트로피 8개
-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 San Diego) 신청접수 중
 - 주제 : "Witness"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170
- ◆ 거룩한 독서 개강
 - 3월26일(수) 오전 10시
 - 3월28일(금) 오전 9시30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국세찬	권오상	권태만	김 욱	김광자
	김윤진	김정엽	김철수	모은기	민상기	박상준
	박상진	박영식	박정순	박주현	박희자	배기엽
	서희준	송기순	안태갑	안희경	오 진	오수인
	유지숙	유태현	육근주	이광우	이재정	이효세
	정규숙	정열모	조영희	차인수	천광락	최미열
	최상만	최진수	한창주	현석주	한길선례	
	합계 : \$5,948					
	미사헌금 : \$2,946					

성전헌금	강인모	국세찬	권오상	권태만	김 욱	김윤진
	김철수	모은기	민상기	박상준	박상진	박영식
	박주현	박희자	배기엽	서희준	안태갑	안희경
	오수인	육근주	이광우	이재정	이일길	이효세
	정규숙	정열모	조영희	차인수	천광락	최미열
	최상만	최진수	한창주	현석주	한길선례	
	합계 : \$4,245					
	감사헌금: 조화숙 성지가지 봉헌: 김대우 부활꽃 봉헌: 조정석, 엄영숙					

◆ 은퇴계획 전략과 효율적인 기부금 증여 방법 세미나

- 3월30일(주일) 오후 1시30분, 강당
- 강사: 월터 최 변호사(기부금, 상속계획 전문)
- 조장희 은퇴계획 전문가(은행로 매니저)
- 주관: 사목회 ☎ 213-819-4242 부총무 박상진 바오로

◆ 한국어 혼인전 강좌 신청

혼배성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혼인전 강좌 (Korean Engaged Encounter Registration)가 오는 4월에 성 마태오 성당에서 있습니다.

- 4월19일(토) 오전 8시부터 8시간 강의
- 수강료: \$50
- 신청마감: 4월12일 ☎ 818-242-4377
- *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3일(부활대축일): 성모회 (부활축하 떡나누기)
- 3월30일(주일): 토런스 북3반(잔치국수 \$3)

남가주 소식

◆ 유빌라데 가톨릭 성가 동호회 주최 '뮤직 캠프'

- 성음악에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4월19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 강사: 윤용선 바울로 신부(천주교 부산교구 성음악 감독)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참가비: \$40(중/석식 제공)
 - 문의: 지휘자 김경숙 클라라 ☎ 909-618-7575

◆ 제 5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 일시: 4월25일(금) 2:30 pm~27일(주일) 5:00 pm
- 대상: 일반인 ● 피정비: \$100
- 장소: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준비물: 성경책, 성가책, 세면도구, 침낭, 편안한 신발
- 신청문의: ☎ 951-302-3400

◆ 제11회 김수환 추기경배 골프대회

- 4월29일(화) 오전 11시 등록, 티오프 낮 12시(샷건)
- Westridge 골프코스(1400 S. La Habra Hills Dr.)
- 회비: \$120(미주 가톨릭 방송 기금 모금)
- 주관: 남가주평신도협의회
- ☎ 213-272-7453 김춘식 회장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유철희 바오로 320-3697 3/8(토)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선희 소피아 534-3191 3/8(토) 오후 7시, 강당
	3	한길선 테 스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 테 스톨라스티카 782-1025 3/14(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송죽 헬레나 213-820-4704 3/8(토)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권영옥 루시아 720-2876 3/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행선 올리아나 328-8351 3/5(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4	이정훈 안셀모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김병태 요셉 327-1658 3/7(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유영균 우르바노 325-8055 3/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3/7(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부활의 믿음으로 진리와 정의, 사랑의 길을 갑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온 국민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시어,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셔서(1코린 15,3-4)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이 절망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죽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열심히 애쓰고 추구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한 마디로 부활을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란 부활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리고 인간의 삶은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1코린 15,14). 주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시작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처지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요한 11,25)고 말씀하신 약속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친교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거짓과 불의, 그리고 악과 미움에 대해 결국에는 진실과 정의와 선과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진리와 정의,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믿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뒤를 힘차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참다운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며,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실천을 통하여 주님 부활의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천 년 전 주님의 부활을 통해 초대 교회는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같은 부활의 믿음으로 새 봄과 함께 기쁨과 희망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부활의 생명과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2008년 3월 23일 / 정진석 니콜라오 /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